

경보기 작동 늦어 '수돗물 오염' 피해 키웠다

광주시의회 상임위 전문인력 부족 등 추궁 피해보상 요구도 봇물…市, 역학조사 나서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용연정수장 수돗물 오염사고가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미숙과 정수시설운영 관리 기술 자격 소지자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규모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돗물 오염에 따른 시민들의 신체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광주시가 신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가기로 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0일 '수돗물 오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보기 작동문제와 정수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인원

부족, 신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용연정수장 침전지 수소 이온 농도(pH)를 알리는 경보기가 관례상 pH 6.0에서 울려야 했는데, pH 5.02에서 울리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침전지 pH 경보기는 낮 12시34분 12초에 울렸으며, 당시 pH는 5.02였다. pH수치가 0.98이나 더 떨어진 뒤 경보가 뒤늦게 울린 것이

다. 수돗물 수소 이온 농도의 정상수치가 5.8~8.5pH인 만큼 pH 6.0에서 경보가 울렸을 경우 사고를 사전에 막았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관례상 정상수치에서 약간 벗어난 pH 6.0에서 경보기 알람이 울려야 했는데,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 미숙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경보시스템 운영 관리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용연정수장의 경우 시설규모가 24만m³인 만큼 수도법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등 총 7명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해야함에도 1급과 2급 각 1명, 3급 2명 등 4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연정수장뿐 아니라 지원·각화·덕남정수장 모두 기술자격 소지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수돗물 오염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이날 현재까지 복통·파부병, 수족관 물고기 폐사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75건에 이른다. 수돗물 오염에 따른 아파트 단지 등의 수도료 감면 외에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피해보상 액도 4290여 만 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애초 알루미늄(AI) 기준치가 최고 10배 이상 초과했지만, 공급 시간이 짧은데다 일시적이어서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돗물 오염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여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수돗물 약품 과다투입 사고경 위 보고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마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에 재발방지와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 실시 ▲정수시스템 인원 충원 ▲약품 공급장치 및 정수장 보안 강화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합동 채용 설명회

광주·전남 빛기념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30일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KPS등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방침 및 채용계획 등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등산관광단지사업 결국 법정 가나

민간사업자 골프장 우선개장 요구…광주시 신청서 반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좀처럼 법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이 '현상태로는 우선 개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가 구성한 TF팀도 '특혜 논란'을 우려해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

어서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결국엔 법정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인 (주)어등산 리조트가 지난 22일 광주시에 접수한 골프장 부분준공 신청서를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

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자가 즐기 차게 요구해 온 '골프장 우선 개장 승인'을 사실상 불허한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준공 신청을 한 것은 어등산 관광단지의 부분 준공에 해당하는데다, 전체 관광단지 면적 중 골프장 면적에 대한 실제 측량 등이 이뤄지지 않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애초 협약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로 구성된 어등산관광단지TF팀도 이날 4차회의를 열고 '전체 사업 단지 중 골프장을 제외한 12만800평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검토했지만 특혜논란에 대한 우려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현 상황에서 골프장만 먼저 개장한다면 사업자만 특혜받고 지난 2005년 당시 '어등산 관광단지 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와 함께 완공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애초 협약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얹혀있어 현재로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엔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기족유상답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2년 7월 2일(월) ~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 광신 대 학 교

☎ 062)605-1112, 1063

이 액수의 1.2배 이하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복록에 올랐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용안정법안' ▲'어르신 효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열린문화공간

아시아문화마루

6월일정안내

- | | |
|----|---|
| 05 | 전당 투어 14:00 ~ 15:00 |
| 07 | 문화예술콘텐츠강좌 15:00 ~ 18:00 |
| 13 | 우리동네 문화행사 17:00 ~ 18:00 |
| 15 | 청춘의 자격 18:00 ~ 19:00 |
| 16 | 夜벼룩시장 17:00 ~ 21:00
청춘의 자격 14:00 ~ 19:00 |

- | | |
|----|---|
| 19 | 전당 투어 14:00 ~ 15:00 |
| 21 | 문화예술콘텐츠강좌 15:00 ~ 18:00 |
| 23 | 아시아, 10cm 더 17:00 ~ 18:00
The 멋진 음악회 19:00 ~ 20:30 |
| 27 | 우리동네 문화행사 14:00 ~ 15:00 |
| 30 | 청춘의 자격 14:00 ~ 19:00 |



문화마루 공식카페로 초대합니다 문의전화_062)236-0481

문화체육관광부

